

# 평 화 선 언

여러분,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핵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타국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군비 확대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세의 악화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일상 생활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가 국가 간의 깊은 불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여론에 있어서도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의 안전과 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평화기념자료관 너머로 바라다보이는 원폭 사망자 위령비,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시선 끝에 위치한 원폭 돔, 이들을 남북 축선 상에 배치한 이곳 평화기념공원은 시행된지 오늘로 75 년을 맞이하는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에 기초하여 히로시마 시민을 비롯해 평화를 기원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희생자를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며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맹세를 다지는 곳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후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소홀히 하고 군비 증강에 주력하였다면 지금의 평화도시 히로시마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다시는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인들의 결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결의 하에 히로시마의 마음을 꾸준히 전해온 피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증오를 넘어서서 인종, 국경에 상관없이 연대하여 불신을 신뢰로, 증오를 화해로, 분열을 융화로 역사의 흐름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는 온몸이 불탄 어머니의 곁에서 피부가 벗겨져 붉은 살이 드러난 아기, 내장이 파열되어 지면으로 노출된 시체... 생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눈 앞에 마주했던 당시 14 살의 남성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바람입니다.

1989 년에 민주화를 향한 시민운동이 고조되면서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며, 군비 경쟁을 정지하여 핵 공포를 멈추고 핵무기를 근절하여 지역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끝까지 추구한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레이건 전 대통령과 대화를 실시해 함께 냉전 종식을 이끌어내며 미소 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정치가가 단고한 결의로 대화를 하면 위기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혼란에 빠진 세계정세를 단지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인들처럼 결의를 다지고 희망을 품은 채 한 마음이 되어 행동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정치가들에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일으켜야 할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류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의 고리’를 형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안심의 고리’를 국경을 초월해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 타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평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 세대 여러분께서는 히로시마를 방문해 이곳에서 느낀 점을 마음에 새기고 폭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우호의 고리’를 형성하여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고 ‘희망의 고리’를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히로시마는 세계 166 개 국가 및 지역의 8,400 곳이 넘는 평화수장회의 가맹 도시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행동을 장려하고 평화의식을 양성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작년도에 평화기념자료관에는 전 세계에서 과거 최대에 해당하는 약 198 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을 만큼 피폭지 히로시마에 대한 관심, 평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가들이 히로시마를 방문해 그러한 시민사회의 마음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폭의 실상을 깊이 이해하고 피폭자들의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평화 기원을 받아들여 핵무기 근절에 대한 굳은 결의를 이곳에서 발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가 과거에 2 회 연속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각국의 핵무기를 둘러싼 사고방식에 큰 격차가 있다는 삼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조약을 국제적인 핵 군축 및 확산 금지 체제의 초석으로서 중시하는 일본 정부는 각국이 입장을 초월해 건설적인 대화를 거듭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처로서, 우선은 내년 3 월에 개최되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제 3 회 체결국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한시라도 빨리 체결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85 세를 넘어 심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선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안고 계신 수 많은 피폭자들의 고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재외 피폭자를 포함한 피폭자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피폭 79 주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넋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핵무기 근절과 더불어 영구적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다시금 피폭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받아들여 피폭지 나가사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히로시마와 함께 내일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시다.

2024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